

강 유역 주민들의 간흡충 감염 경험

김희걸¹ · 전경자² · 김숙영³ · 박명숙⁴ · 김춘미⁵

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¹,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²,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³,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⁴,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⁵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Experience in Residents Living in Riverside Areas

Kim, Hee-Gerl¹ · June, Kyung-Ja² · Kim, Souk-Young³ · Park, Myungsook⁴ · Kim, Chunmi⁵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⁴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⁵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scribe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experience in high risk populations living in riverside areas. The research question was "How do local residents perceive Clonorchiasis and how are they infected with the parasite". **Method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6 participants from January to February, 2009. All the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by the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s:** Five main categories were conceptualized, which were "lacking in understanding of Clonorchiasis," "culture of the rural community," "life style," "recovering experience from infection" and "change of health behavior."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residents are infected with Clonorchiasis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risky f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effective health education programs on both individual and group levels to prevent infection with Clonorchiasis.

Key Words : Parasites, Focus groups, Infection,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장내 기생충 감염 현황을 기생충질환 예방법에 의거하여 197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회충 등 일부 토양매개성 기생충은 박멸로 선포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간흡충 양성률 또한 제1차 조사 결과 4.6%에서 제6차 1.4%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는 2.9%로 제6차 조사 결과보

다 두 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장내 기생충 중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2004).

민물고기를 생식하여 감염되는 간흡충은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을 중심으로 유행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 주변 사람들의 민물고기 생식 습관으로 인하여 현재 대변 검사로 진단되는 기생충질환 감염증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Ju, Jung, Kong, & Oak, 2003). 실제 강변 유역을 중심으로 간흡충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섬진강 유역 주민의 경우 2001년에는 39.0%,

주요어 : 기생충, 포커스 그룹, 감염,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Chunmi,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Tangeong-myeon, Asan-si, Chungnam 336-708, Korea, Tel: 82-41-530-2757, Fax: 82-41-530-2767, E-mail: cmchoi@chollian.net

투고일 2010년 1월 15일 / 수정일 2010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1일

2002년에는 22.4%로 나타났으며(Kim & Yun, 2004), 경남 합천댐 유역 주민의 경우 10.0% (Ju et al., 2003), 낙동강 유역 경남 산청군에서는 33.7%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2004)로 나타나는 등 전국 평균값보다 훨씬 높은 감염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강 유역을 중심으로 간흡충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간흡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실태조사, 감염자 치료제 투약, 재감염 방지 교육, 간흡충 감염 예방 교육 등이 수행되어 감염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지역은 여전히 감염률이 높다. 이 때문에 선행연구(Ju et al., 2005)에서는 강변 유역 주민의 민물고기 생식이 고착화되어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간흡충 계몽, 집단 치료, 홍보, 예방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민물고기 생식습관을 근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Park (2007)의 연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간흡충에 감염된 적이 있으면서도 22.6%는 치료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간흡충 양성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간흡충증 감염률이 높은 강 유역 주민들의 삶과 간흡충 감염 위험에의 노출 정도와 이에 대한 생각과 경험 혹은 대처에 대한 다양하고 독특한 이들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많은 교육 홍보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높은 감염률이나 감염자의 재감염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지 등은 개개인이 가진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 등의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기생충 관리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흡충에 감염되는 순환고리는 무엇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간흡충 고위험군에 속하는 강 유역에 거주하는 간흡충증 감염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간흡충증 감염에 대한 인식과 이에 관련된 문화적, 환경적 특성 등의 상황적 맥락을 파악해 보고자 질적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강 유역의 간흡충증 감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간흡충 감염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민물고기 생식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간흡충 감염 경험을 도출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이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을 의미하는데, 연구의 초점은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도출된다(Morgan, 2007). 즉, 숙달된 면담자가 의도 표집을 통해 그룹에 참여할 대상자를 찾아, 허용적이고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주어진 관심사에 대한 지각을 얻기 위하여 설계되며, 주의 깊게 계획되어진 토의를 한다. 집단 구성원들은 토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에 반응함으로써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피력하게 하는 방법이다(Kim, Kim, Lee, & Lee, 2000).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면담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섬진강과 금강유역에 거주하면서 간흡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대상자들을 연령과 성별 등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의도 표집하였는데 총 16명 중 남자 9명, 여자 7명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중졸 1명과 초졸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학이었으며, 이들 중 국문해독이 가능한 대상자는 11명이었다. 대상자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50~77세의 분포를 보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는 먼저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녹취 등의 질적 면담방법을 설명한 후 포커스 그룹 면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면담 시작과정에서 연구참여수락 및 면담참여에 대한 서면동의의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모든 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표기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상기시켰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질문과 관련된 반구조화된 면담을 준비하여 활용하였다. 면담과정 동안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상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먼저 연구자 인사말과 상호소개, 면

담 목적과 방식에 대한 설명 후 3가지 주요 면담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간흡충의 정의와 간흡충에 감염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간흡충에 감염된 이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건강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셋째, 간흡충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였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생충 감염자들에 대한 고정 관념을 '괄호치기'하면서 대상자들이 말하고 보여주는 그대로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정확한 감염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조리하고 섭취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참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편중으로 인한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가능한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한명의 대상자가 독점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그룹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관점에 무조건적으로 부응하거나 동조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소신있게 피력하도록 하였고, 대상자들이 토론할 때에는 연구자가 적절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생생한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원자료로부터 중요하고 긴밀한 사례(example), 주제,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복잡한 자료들을 의미 있고 다루기 쉬운 주제나 범주로 조직화하고 단순화하는 것이 이 분석방법의 목적이다(Patton, 1987).

내용분석을 할 때, 연구자는 전체 인터뷰 내용을 읽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파악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주요한 범주들, 또는 범주표지가 된다. 범주들은 초기에는 범위를 넓게 잡아서 많은 양의 자료를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마다 약 10~15개 사이의 범주가 보통 사용된다. 일단 범주가 충분한 자료를 갖게 되면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하부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서 자료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수형도(tree diagram)는 주요한 범주로서 유형간의 상하관계를 연관 짓

는데 이용된다.

각각의 범주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연구자는 그 범주들에 대한 설명적인 기록을 하면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찾아야 한다. 그 관계는 어떤 최초의 범주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인이나 결과 가 될 수도 있다(Morse & Field,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면담에서 나온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간흡충 감염 경험에 관한 중요한 평가지표들을 분류하고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

심진강과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간흡충 감염 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5개 범주로 도출하였다(Table 1). 각 범주별로 하위 범주와 대표적인 관련 진술문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흡충에 대한 이해 부족

간흡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설령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각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일부 대상자들은 간흡충에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떠한 경로로 간흡충에 걸리는지조차 모르는 대상자들도 있었으며, 깨끗한 물이나 얼어있는 강물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간흡충 약이나 술을 먹고 민물고기를 먹으면 간흡충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여성 대상자들의 경우 민물고기를 직접 생식하지 않았어도 집에서 민물고기를 조리하여 사용한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감염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남성 대상자들은 예방 차원에서 일년에 한 번씩 간흡충 약을 미리 먹거나 혹은 소주 등의 알코올과 곁들여 회를 먹으면 간흡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같이 어울려 회를 함께 먹어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알코올이 들어가 깨끗이 소독이 되어서 그런지 잘 안 걸리는데..."

특히 중복적으로 간흡충에 감염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Table 1. The Categories of Clonorchis Sinensis Infection Experience

| Categories | Subcategories | Related statements |
|---|--------------------------------------|--|
| Lacking in understanding of Clonorchiasis | Lack of knowledge | "It is danger in the summer, but it is safe to eat in the winter because fishes are clear" |
| | Lack of seriousness | "I will be afraid and won't eat it, if someone near died of distoma. But it never happened" |
| | Blind belief in medical treatment | "We can be clearly recovered by taking medicines, even if we get caught. So we eat again and again, no matter we got caught before" |
| Culture of the rural community | River fishing culture | "In summer, we go out to swim in the river, and enjoy a picnic to catch fishes and eat them as side dishes with friends" |
| | Accessibility | "Because there is a river nearby, there are a bunch of sliced raw fish restaurants. There are about 50 of them" |
| | Face to face community | "Because we don't work in the winter, we gather in the village hall, cook and play together everyday" |
| Life style | Eating raw custom | "We drink alcohol again even when we're in danger. The same behavior applies to raw fish" |
| | Cooking raw fish in homes | "When my husband catches fish, I help him slice the fish around the waterworks. Because there is no separate kitchen board, I use it again after I slice raw fish" |
| | Nutritious supplement by eating fish | "Because there was not much to eat in the old days and it was hard to eat meat, we rather ate a lof of fishes" |
| Recovering experience from infection | No detectable symptoms | "There is no symptoms of distoma. The stomach is fine and..." |
| | Negative test result | "Because I was judged fully recovered after the second checkup, I feel great" |
| Change of health behavior | Change in physical environment | "Not like the old days, there aren't many fishes in the river, because there is a dam and the river is polluted nowadays" |
| | Conversion of perception | "I am absolutely careful after I got caught once. I only eat cooked fishes like pepper-pot soup" |
| | Effect of public health education | "After I got instructed in the clinic, Clonorchiasis was not something to pass over lightly" |

간흡충 치료제에 대한 확신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생충을 우려해서 굳이 맛있는 음식(회)을 굳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민물고기를 먹고 간흡충에 감염되면 약물치료를 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렇게 간흡충 치료제에 대한 맹신과 질병에 대한 심각성 결여로 연결되었다. 즉,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약만 먹으면 완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대상자들은 간흡충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기생충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차례에 걸쳐 중복 감염이 반복되고 있었다.

"디스토마는 걸리는 것도 쉽고 약만 먹으면 낫는 것도 쉬운 것 같아. 이거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어딴어? 한냥을 못봤어. 그렇게 여태까지 무관심으로 했지. 감기처럼 걸리면 온몸이 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증상이 없잖어. 그냥 검사해보고 '당신 양성이여' 이러니까 그런가보다 하는거지."

2. 천렵문화

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지역이 강과 인접해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강에서의 천렵문화

에 익숙해있었다. 즉, 동네 친구들과 쉽게 강으로 놀러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거나 어울려 물고기를 여러 형태로 조리해서 먹었고, 이러한 놀이문화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아울러 강 유역에는 관광지가 형성되면서 횃집이 몇 십개씩 준비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횃집을 찾아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일이 잦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금강 상류에 살다 보니까 고기를 무지하게 잡았어요. 그 물로 목욕하고, 먹기도 하면서 자랐지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초장 찍어먹고 맛있어서 그랬는데..."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은 몇십년씩 작은 마을에 모여 살면서 얼굴을 맞대고 살아와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이들은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면서 늘 함께 어울려 음식을 공유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먹을 것을 함께 준비해서 더불어 먹는 의식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집결하여 점심을 함께 준비해서 먹고 있었다. 따라서 민물고기를 먹는 날도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집단으로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그 때 7명이 강에 같이 놀러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먹었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간흡충 검사에서 양성인 나온거야. 그래서 보건소에 단체로 가서 약을 타 먹었지."

3. 생활양식

간흡충에 감염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지역적 특성과 마을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은 거부감 없이 민물고기를 먹어왔으며, 이러한 식습관은 고착화되어서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즉, 한 동안 민물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각이 나고, 식당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식사에서 민물회가 메뉴로 나오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이전에는 육류 섭취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민물회를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긴 하지만 회가 식탁에 나오면 먹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먹게 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한편, 대상자들은 잡아온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도마 등의 식기류를 사용하고 있었다. 즉,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회를 치기 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한 후에 살균 소독을 하지 않고 적당히 씻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간흡충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칼하고 도마는 사용하고 나서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 놔다가 김치도 썰어 먹고 그랬죠. 난 물고기만 직접 안 먹으면 그런 것은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4. 치료경험

간흡충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우연한 기회에 보건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권유받고 참여했다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간흡충에 감염되었어도 전혀 자각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감도 없어서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디스토마에 걸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대변검사하고 피검사하고 해야 양성인지 알지. 아프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죠. 소장님이 검사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우연히 알게 된거죠. 그 전에는 있으리라 생각도 안했지."

간흡충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약물 치료를 하였다. 특별한 약물 부작용은 없었으며, 정해진 약을 복용한 후 2차 검사를 받아서 간흡충이 치유되었는지를 확인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 판정의 결과 다시는 민물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상자들이 있는 반면에, 안심한 상태에서 다시 민물고기를 생식하여 반복적으로 수차례 간흡충에 중복 감염이 되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었지만 낫느냐 안 낫느냐 그런게 가장 염려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대상자들한테는 2차 채변검사를 또 했거든요.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음성

으로 나왔으니 최고 기분이 좋지요. 대신 안 좋다는 건 먹지 말아야죠."

5. 건강 행태의 변화

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간흡충 검사와 홍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번 이상 간흡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추후 관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시행되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간흡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고 반드시 익혀 먹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천하기 위한 다짐도 하였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는 홍보와 계몽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서서히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말자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약만 먹으면 절대적으로 완치되는 줄로 알았는데, 나도 간에 구멍이 생기고 상처가 남는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스러웠죠. 담관암에 걸린 사진을 비디오로 보고 나니 다시는 물고기를 회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 환경의 변화 역시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주민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댐이 들어서고 물이 고여 있게 되면서 수질이 이전보다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각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몸을 굉장히 아껴요. 옛날에는 몸 망가지든 상관 안했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고 하나 까 다들 80 이상 살잖아요? 그만큼 몸 관리를 하니까. 몸에 해롭다 하면 안 먹어야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흡충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과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간흡충 감염과 관련된 문화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과 재감염에 이르는 상황적 맥락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간흡충에 감염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간흡충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깨끗한 물이나 얼어있는 강물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먹으면 괜찮다, 간흡충 약이나 술을 먹고 민물고기를 먹으면 간흡충에 걸리지 않는다, 예방 차원에서 일 년에 한번 씩 간흡충 약을 미리 먹거나 혹은 소주 등의 알코올과 곁들여 회를 먹으면 간흡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등이 있었으며, 민물고기를 직접 생식하지 않았어도 집에서 민물고기를 조리하여 사용한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 간흡충 감염 요인이나 경로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Kim et al., 2009; Park et al., 200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중복적으로 간흡충에 감염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약만 먹으면 완쾌가 된다는 간흡충 치료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간흡충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생충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치료제의 보급으로 이를 믿고 생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Jung et al., 2009; Kim et al., 2009; Lee,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의 간흡충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며, 감염 경로가 어떠한지, 치료 후 간흡충 재감염 및 중복 감염 방지를 위해 식생활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간흡충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을 문화에 있어서 강 유역 주민들은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여러 형태로 조리해서 먹는 놀이문화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지속되었으며, 또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함께 민물고기 생식하는 생활 습관이 자연스러웠다. 특히 주민들은 강 유역에 많은 수의 횡집이 자리잡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일이 잦았다. 조사대상 강 유역 주민의 이러한 민물고기 생식 습관은 선행연구(Jung et al., 2009; Kim et al., 1984; Kim, Oh, & Park, 2002; Kim & Yun, 2004; Kim et al., 2009; Park et al., 2009)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주민들이 간흡충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잘못된 생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집단별 및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상인 스스로 날 민물고기 판매를 자제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흡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상인이 날 민물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및 마을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민물고기 생식의 식습관이 고착화되어서 한 동안 민물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각이 나고, 식당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식사에서 민물회가 메뉴로 나오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식습관은 민물고기 생식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습성이 가장 중요한 관련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Kim과 Yun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들의 그러한 생식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주민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와 회를 찢 칼과 도마를 살균 소독을 하지 않고 적당히 씻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간흡충의 인체 감염은 오염된 칼이나 도마, 비위생적 민물고기 취급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Kim과 Yun (200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또한 주민들에게 간흡충의 감염 경로를 차단하여 간흡충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적 생활양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치료 경험에 있어서는 이들 주민들은 간흡충에 감염되었어도 전혀 증상 없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감도 없어서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간흡충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할 경우 지시대로 약물 치료를 받아 치료한 후 다시 민물고기를 생식하여 재감염 및 중복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간흡충 재감염 및 중복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는 Lee (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 후 재감염 및 중복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건강 형태에 있어서는 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간흡충 검사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은 간흡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심각성도 깨닫는 등으로 서서히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말자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 오염과 같은 지역의 생태 환경의 변화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주민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민물고기의 생식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이 행동과 실천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재감염이나 중복 감염의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생식 습관을 바꾸고 생식 욕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반복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흡충 감염율이 높은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흡충에 대한 인식과 감염과정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간흡충 감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된 질적 연구였다. 고위험 지역 중 금강과 섬진강에 거주하고 있으며, 간흡충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16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흡충 감염경험의 주요 범주는 "간흡충에 대한 이해부족, 마을문화, 생활양식, 치료경험 및 건강행태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은 간흡충 감염 요인이나 경로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였는데, 특히 중복적으로 간흡충에 감염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기생충에 감염되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약만 먹으면 완쾌가 된다는 간흡충 치료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간흡충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생충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상자들의 간흡충감염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강에 가까운 거주환경과 이로 인해 어려서부터 물고기를 잡아 생식하는 생활양식과 놀이문화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지속되는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감염경험을 한 이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간흡충 검사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은 간흡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심각성도 깨닫는 등으로 서서히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말자는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흡충 감염과정의 맥락에는 개인적 차원, 집단적 및 지역사회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강 유역 주민들이 간흡충의 위험 요인, 간흡충의 감염 경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양식, 비위생적 식생활, 감염의 결과 등 간흡충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단별 및 계층별 맞춤형 개발되, 개발한 프로그램이 단순지식 전달보다는 행동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감염이나 중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간흡충 예방을 위해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흡충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함께 익히지 않은 민물고기 판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Jung, H. Y., Park, J. Y., Kim, H. W., Kim, M. L., Park, E. S., Jeong, I. S., et al. (2009). Study on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Clonorchiasis for high risk population at Yeongsangang (Riv)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4(1), 22-30.
- Ju, J. Y., Jung, D. I., Kong, H. H., & Oak, M. S. (2003). *Human parasitology*.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 Ju, Y. H., Oh, J. K., Kong, H. J., Sohn, W. M., Kim, J. I., Jung, K. Y., et al. (2005). Epidemiologic study of Clonorchis Sinensis infestation in a rural area of Kyongsangnam-do, South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of Public Health*, 38(4), 425-430.
- Kim, D. C., Lee, J. S., Kim, T. S., Chang, Y. M., Son, S. C., & Lee, O. Y. (1984). Epidemiology of Clonorchiasis : Endemicity of Clonorchis Sinensis, in Sancheong area of upper Nagdong River. *Report of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orea*, 21, 267-286.
- Kim, H. G., Kang, H. K., So, A. Y., Kim, Y. S., Park, J. I., Tak, K. S., et al. (2009).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related factors of Clonorchis Sinensis for high risk population at Hangang riversid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4(1), 13-21.
- Kim, S. I., Oh, K. J., & Park, H. (2002). A Seroepidemiological survey for human Clonorchiasis on Soonchang-gun near the Sumjin Riv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27(2), 27-33.
- Kim, S. J., Kim, W. J., Lee, K. J., & Lee, S. O. (2000). *Focus group methods*. Seoul: Hyunmoonsa.
- Kim, S. I., & Yun, W. S. (2004). Control of human Clonorchiasis at Gokseong-gun and Sunchang-gun near the Sumjin Riv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29(1), 163-175.
-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2004). *Prevalence of intestinal parasitic infection in Korea-The Seventh Report*. Seoul: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Lee, G. S. (2008). *Prevalence of Clonorchiasi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inhabitants in Okcheon-gu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Morgan, D. L. (200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Inc.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Chapman & Hall.
- Park, D. S. (2007). Current status of Clonorchis Sinensis infesta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the residence of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2(1), 33-42.
- Park, J. Y., June, K. J., Park, D. S., Jho, K. N., Jho, J. S., Kim, S. C., et al. (2009). Prevalence of Clonorchiasis, knowledge and intention to change behavior of village people living in the catchment area of community health posts along the Geum Riv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4(1), 5-12.
- Patton, M. Q. (1987). *How to use qual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Newbury Park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